2022년 해양수산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도, 총 2024억원 규모 예산 중앙부처에 신청 양식사료 생산시설 확충 등 91개 사업 추진 고영권 정무부지사 "국비 재원 확보에 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해양수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내년도 해양 수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24억 원을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해양수산분야 91개 사업 (사업비 2719억원)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22년 신청 예산 중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504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115억원)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에너지 공급 지원사업(35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30억원) ▷사료용 곤충 생산시설 구축사업(20억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30억원) ▷어류자원 순환센터 시설개선(13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 외에 지속사 업으로 65개 사업에 총 1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산 물 직불제(168억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지원(30억원) ▷친환경에 너지 절감장비 보급(20억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16억원) 등을 추진한다.

다불어 균특 신규사업으로는 ▷제 주항 전원공급 설비(13억원) ▷추 자항 수제선 정비공사(31억원) ▷ 서귀포항 재정비(59억원) 등을 지

이외에도 해양관광 산업 육성 및 쾌적한 연안 관리를 위해 ▷어촌뉴 딜 300사업(271억원) ▷해양레저관 광 거점사업(160억원) ▷해양쓰레 기 정화(28억원) 등도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소득증 대 및 기반조성 등 해양수산분야 관 련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 으며, 향후 제주 해양수산 미래 먹거 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포 함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피해 우려, 인구감소 문제 등 최근 제주의 해양수산업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도 해양수산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애월권역 대중교통 회차지 이달 완공 제주시 "이용편의 제공·주차환경 개선 기대"

제주시 애월권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회차지 조성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애월읍 하귀1리 678-1번지에서 추진 중인 시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조성 사업을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 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회차지(하귀 하나 로마트 주차장)를 대체하기 위한 신 규 회차지로 조성됐다. 하귀하나로마 트 측이 고객 주차면 부족 등을 이유 로 회차지 이설을 요청하면서 사업 비 5억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회차지 조성이 완공되면 주 민 대중교통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노 선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규 회차지 이용노선은 총 4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회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는 하귀하나로마 트-신규 회차지 구간에 대한 노선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 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등 주차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는 공영버스가 이용할 대형버스 주차공간(8면) 이외에도 지역 주민 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소형차량 주차공간(18면)을 함께 조성했다. 이와함께 조경시설 및 간이운동시설 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회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쾌적한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제주시,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추진위원 10명 위촉 책방 공유체계 확립 등 역할

제주시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12일 시청 3별관에서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썸ː]' 추진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10명을 위촉

했다.

이날 위촉된 추진위원들은 작가· 책방주인 등 제주시지역 내 문화분 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로 구 성됐다.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다.

시민 주도 사업인 문화도시 책방 축제 책섬[썸:]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동네책방을 지원하고, 동네책방 공유체계를 확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오는 6월 2021 문화도시 와 함께하는 책방축제 책섭[썸ː] '○○책방은 ○○○○와(과) 열애 중'을 주제로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 이다

올해 책방축제 책섬[썸ː] 참여 책방은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제주 시내 권역 등 총 19곳이다.

그 중 구좌읍 지역 책방 3곳(소심 한책방·책약방·책자국)은 공동기획 프로그램 '책방, 종달 빠지다'를 구 성해 마을 문화와 역사 등을 지역 주 민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각 책방별로 지역 및 책방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 련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점령당한 자전거길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해안도로 자전거길과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교행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상국기자

'넙치 SPF 종자 생산기술' 개발 본격

'수산물 품질관리·검역시스템 구축사업'선정 도, 4년간 92억 투입 무병 종자 생산기술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 산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모한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사업'에 '넙치 SPF(특정병원체 무감염) 종자 생산기술 개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넙치 SPF 종자생산 기술 연구과제에는 도내 넙치양식 및사료생산 업체인 대봉LF(영)의 부설연구소가 주관하고 제주대학교 등

연구과제에는 ▷양식현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12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한 무병 넙치 종자 표준생산시스템 구축 ▷SPF 종자 및 생물사료 개발 ▷SPF 친어·수정란·치어 확보와병원체 검사 및 소독 처리기술 ▷SPF 넙치 인증기준안 마련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4년 동안 정부의 연구개발비 81억원과 참여기관 재정부담금 11억5000만원 등 총 9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제주 도는 최종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향후 도내 넙치양식장에 SPF 종자를 보급 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업 기간 동안 친어~수정란~치어 ~성어 단계에서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넙치 질병예방양식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식 분야 SPF 종자 생산기술은 1989년 미국 하와이 새우를 시작으로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가파도·마라도 공동 LPG용기보관실 설치

가스안전공사, 10월까지 완료

가파도와 마라도가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전국 공모로 이뤄진 '도서지역 공동 LPG 용기보관실 설치사업' 대 상지에 선정됐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물 주변에 사용하는 노출된 가스용기를 '공동 LPG 용기보관실'에 보관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를 제1 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로 선정,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기보관실 벽은 철근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콘크리트 블럭제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강판제 방호벽은 도서 특성상 부식에 취약해 제외하며, 그 외 사항은 액화석유 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용기보관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공사 측은 4000만원을 투입해 공 동 LPG 용기보관실 설치 및 검수할 예정이다.

설치 이후에는 가파도와 마라도는 개별 용기를 용기보관실에 보관 및 관리한다. 시는 안전 점검 및 교육 등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찾아 나선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올해 첫 사업 전국 공모

'문화도시'서귀포시가 미래세대에 게 전하는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찾 기에 나선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서귀포시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105개 마을의 노지(露地)문화 발굴 및 콘텐츠화를 위한 '어제의 유산 내일의 보물,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을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유·무형 의 노지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재생 그리고 아카이빙과 휴먼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전해줄 문화자산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공모 참여는 서귀포시민뿐만 아니라 도내·외 개인, 단체, 전문가, 마을, 관련기관 등 모두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서귀포시 105개 마을의자연, 인문, 역사, 생활, 음식, 신화, 건축 등 유·무형 노지문화 자원이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1차 모집은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온·오 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선정된 미래문화자산은 휴먼라이 브러리, 영상, 그림이야기책, 사진,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 텐츠화 되며 소유자 동의 시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현판이 부착된다.

문의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064-767-9505.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